

# 巨濟에 심은 나의 꿈나무

## — 거제가축병원 김진수 원장 —

### 10년 임상경력의 거제출신

거제도에 들어선 뒤에도 끊임없이 달리는 차 속에서 오지(奧地)라는 개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

「해안이나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대륙 내부의 깊숙한 땅」이라는 원래의 뜻과 해안과 인접한 거제와는 어긋나 있을지 모르지만 마산에서도 고성과 충무를 거쳐 한참 달리다가 거제대교를 건너며 만나는 땅. 꽤 굴곡진 산들과 많은 전답 사이를 한참 달리다 보면 섬이라는 것도 잊을 것 같은 우리나라에서 두번째로 넓은 이곳 거제는 드문드문 해안도로에 나설 때 만나는 푸른 바다와 차창으로 불어오는 해풍이 다시 섬이라는 것과 오지라는 것을 실감케 해주었다. 거제면 소재지 안의 중심도로변에 위치한 거제가축병원은 쉽게 찾을 수 있었으며 병원내부는 꽤 넉넉한 평수로서 한눈에도 깨끗했고 세심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그곳에서 만난 김진수(34세) 원장은 검게 그으른 다부진 모습의 전형적인 임상수의사의 소탈한 모습이었다.

김원장은 1952년 거제도 고향출생으로 경상대 수의학과를 1973년도에 졸업하고 ROTC수의장교로 군복무를 끝낸 뒤 곧바로 거제에 개업한 10년 경력의 임상가이다.

원래 집에서 키우던 소가 병이 나곤 할 때 안타깝던 느낌들이 수의학을 택한 동기로 작용했



▲병원 전경

던 것 같다고 했으며 수의학과를 진학하자 별 주저함없이 임상수의사로서 고향인 거제에 개업할 것이라는 미래가 확정되어 있었다 한다.

“거제는 내가 아끼는 고향입니다. 군에 복무할 당시 틈이 나면 가까운 인천이라도 달려가 한동안 바다내음을 맡으며 앉아있곤 했죠. 개업 직전 장소를 물색할 때 한동안 대도시나 좀 살기가 더욱 편한 곳에서 시작할까 하는 마음의 갈등도 있었지만 이곳에서 시작하길 잘했다는 생각입니다.”

작년까지는 성내가축병원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이 병원은 정종기(현 국립동물검역소 근무) 씨의 장소를 인계받아서 해운 것으로 거제가축병원의 한예주 원장이 작고하시자 유가족의 동



▲축주에게 친절한 양축상담을 해주는 것도 중요한 일과이다.

의를 얻어 거제가축병원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임상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정종기씨는 물론 군복무 당시 근처에서 개업하고 계시던 윤주배(연천군 서울가축병원) 원장의 도움과 격려를 평생 잊을 수 없다고 한다.

#### 한우와 돼지가 주된 진료대상으로 소화기계 질병 많아

현재 거제군은 11개 읍면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군내의 동물병원은 4 개소가 있는데 지역적 분배는 공평하게 잘 이루어져 있고 병원간 협조도 잘되고 있다고 한다. 김원장이 주로 맡고 있는 지역이 거제면과 동부면, 남부면으로 4천여두의 한우와 돼지가 주된 진료대상이다. 유우는 한마리도 없으며 비육우는 주로 농가부업 형태의 한가구당 15두 정도의 규모가 보통이다.

거제의 축산조건은 섬임에도 불구하고 산지가 많고 기후도 좋아 질병이 적은 편으로 매우 좋은 편에 속한다.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질병은 주로 소화기계통의 질병으로 간질과 사양관리 소홀로 오는 질병이 태반이다.

#### 최신 지식, 정보 입수에 어려움 많아

특히 오지에 위치함으로서의 어려움을 김원장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가장 큰 어려움은 최신 정보와 기술을 알고자 하는 욕구를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쉽게 뛰

어가서 물을만한 곳도 없고 아무래도 모든 것이 늦는 편이지요. 기자재, 약품같은 것도 무엇이 새로 개발되었는지 잘 모르고 새로운 수의학정보 등도 귀에 쉽게 잘 안들려오지요. 그런 면에서 저 자신의 노력이 남들보다 더해져야겠지요. 지난 1981년도 참가했던 수의사보수교육과 1년에 2회씩 개최하는 경남지부의 임상강습회는 아주 유익했습니다. 두번째는 이곳의 지역적 특성으로 양축농가의 지적인 수준이나 경제적 수준이 낮으므로 해서 겪는 어려움이 많지요. 셋째는 늘 한우와 돼지만을 진료하게 되니까 타축종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질병에 관한 것을 점점 잊게 되지요. 예를 들어 수의임상분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유방염을 지금까지 한번도 접해본 일이 없습니다. 또 한가지 있다면 길이 너무 험하니까 왕진을 갈 때 보통 비포장도로로 20km 이상을 다니게 되는데 특히 야간에 진료를 나갈 때면 운전이 보통 힘들게 아납니다.”

특히 그 마지막의 어려움은 금방 이해할 수가 있었다. 합덕이라는 곳까지의 왕진길에 동행하면서 그 심하게 굽어진 비포장도로를 꼭예하듯 덜렁이며 달려가는 차속에서 새삼 그러한 어려움을 실감할 수가 있었다.

#### 경제적 이익보다 사회에 봉사한다는 자부심이 도움

“어떤 경제적인 이익만을 생각하며 이 일을



▲수술한 소의 예후를 살펴보고 있는 김원장.

하기는 어렵습니다. 쓰러졌던 소가 거뜬히 일어날 때의 직업적 성취감과 사회에 봉사한다는 자부심, 양축가들과 고락을 같이 하며 축산발전에 크게 기여한다는 보람같은 것으로 열심히 뛰게 됩니다.”

그만큼 열심이라는 것이, 그만큼 성실하다는 것이 곳곳에서 마주치면 공손하게 인사하고 지나치는 농부들의 태도에서 정직하게 나타났다. 합덕에 도착하여 찾는 농가는 어미소 여섯마리에 송아지 두마리를 키우고 있는 곳이었는데 암소 한마리의 자궁탈을 수술한 후 예후를 보러가는 케이스였다.

소의 상태는 아주 좋아보였는데 실밥을 뽑고 있는 김원장의 옆에서 축주로 보이는 노인이 진한 경상도 사투리로 이야기를 꺼낸다.

“이렇게 완전히 나올 수 있는 소를 도축을 하라고 권하다니 참 몹쓸 사람이네.”

“누가 그러던가요?”

“그 농촌지도사라는 사람말이요, 한번 소를 보더니 수의사한테 맡기면 돈만 들고 고칠 수도 없는 병이니 고깃값이라도 건지라는거요. 그 사람 말을 들었으면 큰일날뻔 했지 뭐요?”

짙더미 앞에 한가롭게 앉아 기쁜 표정으로 활기찬 소를 바라보는 노인의 표정을 보며 이런 것이 임상수의사들의 보람이려니 하는 느낌이 들었다.

### 한방에 대한 공부에 열심

김원장은 요즘 한방을 공부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민간요법의 효능에 놀라

움을 느낀 적이 많아 본격적으로 한방전문가에게 침을 교습받고 있으며 약초에 관해서도 틈틈히 책을 보며 공부하고 있다.

“한방의 효능은 이미 공인된 것이 아닙니까? 인의부문에서는 한의학과도 많으며 이미 대단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데 수의학분야에서는 이쪽을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대학의 커리큘럼에 시간을 할당한다든지 한방에 관한 세미나 같은 것도 많은 관심을 모을 것입니다.”

공수의로도 바쁜 방역활동과 예찰업무를 감당해야 하는데다 수시로 양축가들로부터 받는 양축상담에서부터 책을 보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는 김원장의 곁에는 진주출생의 부인 김정임 여사의 자상한 내조가 함께 한다.

“아빠가 보람을 느끼시는 직업이니까 늘 감사하게 생각하지요. 생활의 불규칙한 리듬으로 건강을 해치게 되거나 늘 험한 길을 다니다가 사고라도 날까봐 늘 걱정이 떠나지 않기는 해요. 때로는 좋은 양복도 한번 입어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움이긴 하지만 본인이 좋다면 저도 좋은 거지요.”

멀고 먼 서울로의 여정에 다시 오르며 오지에서 살아도 외롭지 않을 이유가 그렇게도 어려가지라는 것이 한 감동으로 전해오며, 수많은 벽지에서 비슷한 기쁨과 어려움, 보람,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계실 수의사들을 위한 난을 마련하게 된 것이 참으로 잘한 일이라는 느낌이었다.

(取材 : 安南信)